

## 여성노인의 학대경험 및 연령이 상태불안에 미치는 영향

양 경 미                  윤 가 현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요약) 본 연구는 여성노인들( $n = 243$ , 연령범위 = 65~89)의 학대경험 및 연령이 그들의 학대불안을 어느 정도 설명해주는가를 살피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은 시설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최소한 1명의 가족이나 친지와 거주하는 있으면서,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인지기능의 퇴화를 보이지 않은, 그리고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들이었다. 연구결과 상당수의 노인들이 학대(특히 정서적 학대)나 상태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학대경험이 그들의 상태불안을 약 34.5% 정도 설명해주고 있었으며, 또 그들의 연령도 상태불안의 약 1.6%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었다.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그들의 상태불안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학대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논의하였다.

[Key words: 노인학대, 상태불안]

---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34-800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419번지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양경미 교수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자의 e-mail 주소는 [kmyang@chodang.ac.kr](mailto:kmyang@chodang.ac.kr)입니다.

의학의 발달과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20세기 후반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어느 문화권보다도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4년 5.7%에서 2004년 8.7%로 늘어날 정도가 되었다 (통계청, 2004).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노인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들도 여러 측면에서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가정에서는 의료비 증가를 비롯하여 노인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물리적, 정신적 에너지 투자 등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며, 노인 개개인에게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쇠퇴와 함께 가족이나 타인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게 된다. 그로 인하여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의 경우 가족들의 갈등이나 노인의 의존성 증가 때문에 노인이 학대를 받는 상황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노인학대와 관련된 연구들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우선 노인들이 어느 정도 학대를 당하고 있는가를 밝히려는 연구들에 의하면, 적게는 8.6%의 노인들이 또 많게는 30% 이상의 노인들이 학대를 받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권중돈, 2004; 박미은,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이와 같은 비율의 차이는 학대의 정의를 비롯하여 학대의 인지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 같으며 (박진희 · 윤가현, 2001), 왜 그러한 차이가 존재하는가에 상관없이 노인학대 문제는 노인들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므로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노인학대의 특성을 연구한 결과들에 의하면, 남성보다 여성이 학대를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여성이 홀로 살아가는 경향이 남성보다 더 크다는 것이나 또는 연령이 더 높다는 것 등과 관련이 높았다 (양경미, 2003; 한은주 · 김태현, 2000). 또 학대를 받은 경험에 있는 노인들의 일부는 불안이나 우울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박미은, 2004).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불안이나 우울 증상은 노화의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지만, 대다수 노인들에게서 어느 정도의 증상은 보이고 있

## 노인의 학대경험과 상태불안

다. 개인의 특성불안의 정도는 자신이 특정한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고 보기 어렵다. 노인들에게서 보이는 우울이나 불안 증상을 설명하는 연구들에 의하면, 건강상의 문제나 사회적 상황 등이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특히 노인들의 상태불안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과의 관련성이 높았다 (Harris 등, 2005). 그렇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노인이 부양을 받고 있는 상황을 더 불안하게 지각할 가능성도 커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경험하는 학대상황도 그들의 정신적인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또 준다면 어느 정도 주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학대 경험의 정도가 상태불안을 설명하는 정도를 찾고자 하며, 아울러 연령도 상태불안을 설명해줄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환경 조성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 방법

### 조사대상자 및 조사절차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수도권 및 호남 지방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재가노인으로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전혀 없을 정도로 인지적인 퇴화를 보이지 않고, 시설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최소한 1인 이상의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살고 있으며 (가족이 아닌 친인척과의 동거비율은 약 6%이었음),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한 243명의 여성들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연령은 평균 74.4세( $SD = 6.62$ ,  $Range = 65-89$ )이었으며, 그들과 동거하고 있는 가족 수는 평균 3.95명( $SD = 1.87$ )이었다. 그들의 결혼형태는 남편과 사별한 경우가 3%이상(167/243)이었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28.0% 그리고 이혼이나 별거 등의 상태가 3.3%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학력수준은 무학이 56.0%, 초등학교 졸업 28.4%, 중졸 이상이

15.6%로 매우 낮은 편이었고, 조사대상자 중 약 4.5%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자료 수집은 첫 번째 연구자를 비롯한 훈련 받은 연구보조원들이 조사대상자에게 설문지 문항을 하나씩 읽고 설명해주면서 응답내용을 기재하는 형식을 취했다. 자료 수집은 2002년 가을에 이루어졌으며, 모든 자료는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이었다. 자료는 면담에 응했던 265명 중에서 일부 문항에 대한 응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22명의 자료를 제외한 상태에서 분석되었다.

#### 조사도구

조사를 위한 설문지 문항들은 연령이나 가족관계 등을 묻는 내용들과 노인학대 및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들도 구성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태불안의 점수가 종속측정치로 이용되었다.

노인학대를 측정하는 도구는 서운(2000)과 김승권·조애저(1998)가 사용했던 문항들을 참조로 모두 38문항을 선정했는데, 이들은 5개의 학대유형별로 구성되었다. 학대유형별 문항의 수는 정서적 학대가 10, 언어적 학대 6, 신체적 학대 7, 재정적 학대, 그리고 방임 8문항이었다. 이 도구의 반응형태는 Likert식 5점 척도[“전혀 없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노인학대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  $\alpha$ 는 .96( $n = 243$ )이었으며,  $\alpha$ 값을 5개 유형별로 계산할 경우 정서적 학대 .92, 언어적 학대 .93, 신체적 학대 .91, 재정적 학대 .84, 그리고 방임 .871이었다.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는 김정택(1978)이 번안했던 상태불안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pielberger, 1970)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반응형태는 “거의 그렇지 않다 (1),” “가끔 그렇다 (2),” “자주 그렇다 (3),” “거의 언제나 그렇다 (4)”의 네 가지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상태불안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  $\alpha$ 는 .96 ( $n = 243$ )이었다.

## 결 과

먼저 <표 1>에 제시된 노인학대의 유형별 상관관계를 보면, 5가지 유형간의 관련성이 매우 높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 학대 및 방임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재정적 학대와 방임의 상관도 매우 높았다. 학대발생에 대한 평균점수를 1문항의 점수 기준으로 치환해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는 거의 보고되지 않는 수준이었던 반면, 정서적 학대 각각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1문항을 기준으로 3.0 이상의 점수를 보인 조사대상자들의 비율은 정서적 학대가 10.5%, 언어적 학대가 5.3%, 재정적 학대가 2.1%, 그리고 방임이 7.0%이었으나, 신체적 학대는 0%이었다.

한편 본 연구의 종속측정치인 상태불안의 점수는 평균 43.90( $SD = 12.69$ )이었는데, 이는 1문항의 점수로 환산했을 때 2.20( $SD = 0.63$ )으로 “가끔 그렇다”의 반응보다 약간 더 높은 점수에 해당된다. 이를 구

<표 1> 학대유형별 및 상태불안의 상관관계 및 점수분포

|       |      | 학대 유형 |      |      |      |       | 상태<br>불안 |
|-------|------|-------|------|------|------|-------|----------|
|       |      | 정서적   | 언어적  | 신체적  | 재정적  | 방임    |          |
| 정서적   | $r$  | -     |      |      |      |       | .632     |
| 언어적   |      | .833  | -    |      |      |       | .477     |
| 신체적   |      | .351  | .577 | -    |      |       | .243     |
| 재정적   |      | .553  | .439 | .214 | -    |       | .340     |
| 방임    |      | .708  | .571 | .389 | .665 | -     | .482     |
| 전체점수  | $M$  | 17.46 | 8.67 | 7.45 | 9.04 | 11.90 | 43.90    |
|       | $SD$ | 8.06  | 4.67 | 1.69 | 3.72 | 5.52  | 12.69    |
| 1문항   | $M$  | 1.75  | 1.45 | 1.06 | 1.29 | 1.49  | 2.20     |
| 기준 점수 | $SD$ | 0.81  | 0.78 | 0.24 | 0.53 | 0.69  | 0.63     |

주.  $r$ 은 모두  $p < .01$  수준에서 의의가 있음 ( $n = 243$ ).

1문항 기준 점수의 범위는 학대유형은 1-5, 상태불안은 1-4임.

<표 2> 상태불안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    | $\beta$ | $R^2$ | $F$       |
|-----|----|---------|-------|-----------|
| 1단계 | 학대 | .587    | .345  | 126.97*** |
| 2단계 | 학대 | .539    | .361  | 67.72***  |
|     | 연령 | .135    |       |           |

\*\*\*  $p < .001$

체적으로 보면, 연구대상자들의 절반 이상(58%)이 1문항의 점수가 평균 2.0이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평균점수가 3.0이상인 연구대상자의 비율도 약 12.3%에 해당되었다.

상태불안과 5가지 학대유형의 상관관계도 매우 높았으나, 그보다도 상관관계가 더 높은 경우들이 5가지 학대유형들 사이에 나타났다(<표 1> 참조). 이에 상태불안을 종속변인으로 그리고 학대와 연령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는 회귀분석에서는 5가지 학대유형의 점수가 아닌 학대의 전체점수를 독립변인으로 이용했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에서 학대경험은 상태불안을 설명하는 전체 변량 중에서 3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은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 논 의

본 연구는 여성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로서 연령과 학대의 경험이 그들의 상태불안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그 분석결과를 설명하기에 앞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 중에서 학대를 경험하는 비율이나 상태불안을 경험하는 비율을 측정도구의 1문항 평균점수로 살펴보면, 학대에서는 평균점수가 3.0 이상인 경우가 정서적 학대에서 최고 10%를 넘었던 반면, 신체적 학대는 0%에 가까웠다. 또 상태불안도 1문항의 평균점수가 3.0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12%를 넘었다.

## 노인의 학대경험과 상태불안

회귀분석의 결과 상태불안을 설명해주는 전체변량 중에서 학대경험이 약 34.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연령도 약 1.6%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성불안과 달리 상태불안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달려 있는데, 자신이 그 상황을 스트레스로 지각하거나 또 그런 상황을 자신이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각할 경우 상태불안이 높아지게 된다. 장기종단적인 연구에 의하면, 상태불안이 높은 것은 신체기관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과도 관련이 높으며, 인지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Wetherell 등, 2002).

이에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태불안이 낮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인이 거주하는 공간(가정이나 시설기관)에서의 학대발생 예방이 필수적이다 (윤가현, 2004). 본 연구의 결과에서 학대의 예방은 연령이 높을수록 더 절실히 할 수 있는데, 동거가족과의 관계 개선이 학대예방은 물론 불안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Harris 등, 2005).

## 참 고 문 헌

- 권중돈 (2004).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4 (1), 1-19.
- 김승권·조애저 (1998).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사회보건연구원.
- 김정택 (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은 (2004). 도시거주 노인의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통권 26호, 309-336.
- 박진희·윤가현 (2001). 고령화 사회와 노인학대. *한국노년학연구*, 10, 131-148.
- 서 윤 (2000).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지와 목격실태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통권 7호, 28-71.
- 양경미 (2003). *재가 노인의 학대와 대처방안 및 학대결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가현 (2004). 시설에서의 노인학대와 사회복지정책방안. *노인복지정책연구총서*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발간), 32, 79-117.
- 통계청 (2004). *고령자 통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노부모 학대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 한은주 · 김태현 (2000). 노인학대의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한국노년학*, 20 (2), 71-89.
- Harris, T., Cook, D., Victor, C., Rink, P., Beighton, C., Dewidle, S., & Carey, I. (2005). Are depression, anxiety, and helath beliefs important predictors of older people's primary care consulting? *Age and Aging*, 34 (4), 398-401.
- Spielberger, C., Gorsuch, R., & Lushene, R.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Wetherell, J., Reynolds, C., Gatz, M., & Pedersen, N. (2002). Anxiety, cognitive performance, and cognitive decline in normal aging. *Journals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57, P246-P255.

**Effects of Experienced Abuse and Age for  
the Female Elderly People on their State Anxiety**

KyungMi Yang

Gahyun Youn

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Muan, Korea 534-800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500-75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designed to suggest a way of improving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people. The sample consisted of 243 elderly women who lived with at least one family member or relative and were cognitively intact. Stepwise regression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amount of elder abuse-related variance that could be attributed to their state anxiety. In addition, age was added as a predictor variable in the analysis. Th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amount of the variance in state anxiety accounted for by the abuse was 34.5%, and an additional 1.6% by age. The findings were briefly discussed in the context of preventing elder abuse.

(논문접수일: 2005년 10월 14일)

(수정논문접수일: 2005년 11월 18일)

(논문게재승인일: 2005년 11월 29일)